

#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 지속

## 전북도교육청, 남원시 - 진안군 교육협력 강화 수학적합시설 건립 · 스쿨존 안전대책 등 협의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력을 강화하고 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익산시, 군산시, 부안군 등과 차례로 교육협력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최근에도 남원시, 진안군과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진안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부사관 학교로 지정된 진안공고 기숙사 운영비 문제를 협의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진안군에서 2019년도 기숙사 운영비 5억4,100만원을 지원해줘 학사운영에 큰 힘이 됐다"며 "2020년도 기숙사 운영비는

도교육청에서 책임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큰 도움을 준 진안군에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과 진안교육지원청은 방과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농어촌 교육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진안마을교육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군에서 계속사업비로 올해와 같이 1억6,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진로체험교육, 해외연수, 방과후 수업 등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진안공고

가 부사관학교로 지정되어 학생수가 증가하고, 지역사회 활력을 가져오고 있어 다행이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용 권한대행과 정책간담회 후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을 만나 교육협력 예산문제 등을 협의했다. 신갑수 군의장은 "전북 다 시군 보다 진안군의 교육경비 지원이 많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더 신중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에는 남원시를 방문해 이완주 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남원시에 들어설 '수학적합시설'의 원활한 건립과 남원 교육혁신특구 운영, 스쿨존 안전대책 등을

협의했다. 이완주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내 안전시설은 지체 없이 설치하겠다"며, 남원에 들어설 대규모 교육시설인 '수학적합시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매입과 분묘이장 등에 남원시가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남원 지리산권에 귀농귀촌인 집결지가 많고, 귀농인도 계속 늘고 있다"며 "남원 동부권에 청소년 문화시설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하반기에도 전주, 정읍, 무주 등의 지자체와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실천 방안 모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교원의 인식 전환과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도내 초·중등교원 35명을 대상으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과제 설정 및 토론을 추진하고, 토론과 사례 중심의 연수과정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 학교현장에 맞는 민주시민교육을 지향하여 전북지역 학계, 시민사회, 학교현장이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다. 연수는 강의와 함께 참가자 전원의 토론 중심으로 운영했으며, 지식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벗어나 삶 속에서 체화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민주주의와 헌법 ▲민주시민교육 입문 ▲민주시민교육의 영역과 교원의 자질 ▲학교 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 ▲자치회 통한 민주시민교육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민주시민교육 정착과 일상화를 위한 토론 등이다. 연수 후에는 민주시민교육 교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인 방향과 실천 방안을 논의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바람직한 학교민주시민교육 방안을 정립해 미래 교육의 원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가정·학교·마을 등 공동체 속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도교육청, 북한이탈학생 진로체험 기회 넓힌다

전북도교육청이 북한이탈학생을 위한 진로·직업캠프를 운영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이탈학생과 친구들이 함께하는 나의 꿈 디자인하기 진로·직업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캠프는 북한이탈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 및 미래에 대한 자신감 강화를 위한 것이다. 또 북한이탈학생과 일반학생의 어울림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력을 높이고, 또래간의 친밀감을 조성하고자 친한 친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캠프 첫날은 창업체험센터 광주 I-PLEX, 유네스코 미디어아트플랫폼, 국립광주과학관을 견학하며 소프트웨어(코딩) 교육과 3D프린팅 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날에는 아트트리 아카데미, 가상증강VR 진로체험센터 등을 방문한다. 아트트리 아카데미에서는 웹툰작가·일러스트레이터·애니메이터·게임컨셉아티스트 등의 직업체험을, 가상증강VR 진로체험센터에서는 VR기기와 디지털 게임 콘텐츠를 통한 진로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과학도시인 광주를 방문해 다양한 직업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북한이탈학생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 학생 연구 '우수'

### 한대현·강명철·전호연 연구원 국제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의 한대현(박사과정)·강명철(박사과정)·전호연(학사과정) 연구원(지도교수 강대형)이 최근 인천에서 열린 Advances in Aerospace and Mechanical Engineering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발표 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에서 한대현 연구원은 '비파괴 검사를 위한 테라헤르츠파 이미징 방법'을, 강 연구원과 전 연구원은 '하소온도와 소결온도 최적화를 통한 PZT/PMN 압전 세라믹의 성능 향상'이라는 주제로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 연구원의 논문은 테라헤르츠파를 복합적층 구조물에 쓰아 얻어지는 반사신호를 통해 구조물 분리 없이 각 층별 두께나 층간 접착 및 분리, 결함 등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연구다.



강명철 전호연 한대현

또한 강명철·전호연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는 초음파 발생 및 신호 취득에 많이 사용되는 압전재료 제작 과정에 발생하는 열처리 온도를 최적화 해 성능이 좋은 압전 세라믹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연구원들을 지도한 강대형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우리 연구소에서 총 12편의 우수한 논문을 발표했고, 이 중 두 편이 우수 발표 논문상을 수상했다"면서 "학생들이

열심히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결과를 잘 정리하여 발표한 덕분에 두 건의 우수 발표 논문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연구원의 논문은 BRIDGE+ 사업의 지원으로, 강 연구원과 전 연구원의 논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됐다.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다양한 최첨단 비파괴 검사 기법을 연구하는 물론 전북 탄소 산업과 연계한 여러 연구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전북도 주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대 곤충미생물공학연구실, 국제학회서 '주목'

### 이미롱·박소은 학생 곤충방제 연구 'Student Award' 김재수 교수, 연구 성과 비디오 경쟁 부문서 '금메달'

전북대학교 곤충미생물공학 연구실(연구책임 김재수 교수) 이미롱·박소은 대학원생(박사과정)이 최근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곤충병리학회에서 'Student Travel Award'를 공동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50회를 맞는 국제곤충병리학회는 젊은 연구자들이 사전 제출한 구두발표 초록 중 우수한 연구를 사전 평가해 지원하는 'Student Travel Award'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실험실에서 2명의 수상자가 나온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미롱·박소은 대학원생은 각각 질병매개충에 대한 생물학적 방제 연구와 닭진드기의 안전한 방제모델 구축 연구를 발표해 학회에 참여한 세계 학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미롱 학생은 증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유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살인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한 고화력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운영에 대한 전주교대 교수(강사) 및 시설(기자재실 등) 활용 지원 ▲교육학 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무형유산 분야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장은성 기자



Biopesticide를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곤충미생물공학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재수 교수는 이 학회에서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방제 연구를 '연구 비디오 경쟁 분야'에 출품해 금메달을 받았다. 김 교수팀은 이 연구 성과를 기업으로 기술 이전 해 '총체썩'이라는 제품을 상품화하며 미생물을 이용한 해충방제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대통령 경정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재수 교수는 "이번 국제학회에서 우리 연구실 학생들의 역량과 우리가 개발한 미생물을 활용한 해충방제 연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며 "우리 연구실과 우리대학이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연구에도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상작은 학회 유튜브에 공개돼 세계 연구자들과 공유된다. /장은성 기자

## 전주교대 - 국립무형유산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공동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 전승하기 위한 사명을 가진 국립무형유산원은 세대 간의 전승을 통

해 보존·발전하는 무형유산의 특성상 청소년들에 대한 전수교육의 중요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소속의 전수자 및 이수자간 전승은 대개 도제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바 전라북도 내 유일 초·중·고교원양성기관인 전주교육대학교가 축적해온 교수법의 정수를 기본으

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해 전수자의 교수법 역량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현장의 신뢰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협약 주요내용으로는 ▲교육 운영에 대한 전주교대 교수(강사) 및 시설(기자재실 등) 활용 지원 ▲교육학 분야 교육과정 개발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무형유산 분야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장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